

손학규 '범여권 선두주자' 대세몰이

범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서 손학규 전 경기 지사가 정치권 세 규합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대선 행보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17일 출범한 선진평화연대가 비정치적 성향이 강한 조직이었던 만큼 이제부터는 정치권과 직접 교감하면서 지지기반을 넓혀 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손 전 지사는 특히 17일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에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자세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범여권 의원과의 세 규합을 통해 대통합의 추동력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손 전 지사 측은 오는 20일 김부겸·조정성·정봉주·신학용·한광원 의원 등 열린우

'선진평화연대' 출범 범여권 의원 세 규합 나서 우리 탈당과 특보단 배치...전국 조직화도 가속

리당 탈당과 의원 5~7명으로 구성된 특보단을 꾸린다. 전원 원외로 구성됐던 캠프에 의원들을 처음으로 전면 배치한 것이다. 이번 특보단은 정책·기획·정보 등 캠프에 필수적인 인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지만 향후 세 불리기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지사 측은 17일 선진평화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65명의 의원 중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 지도부를 제외할 경우 50여 명의 의원이

손 전 지사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분류될 수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손 전 지사 측은 나아가 가급적 이달 중 전국 16개 시·도 전 지역에 선진평화연대 지역본부 성격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는 등 선진평화연대의 전국 조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손 전 지사는 또 평화·경제·부동산·교육·세계 등 정책구상 발표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진평화연대 출범에 전념하느라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던 정책 구상을 차례로 발표하며 준비된 대선후보로서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대통합신당 추진작업에는 당장 직접 뛰어들지는 않고 일정 거리를 두면서 대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 경우 자칫 '세 싸움'을 한다는 범여권 기존 세력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손 전 지사는 통합 논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대선주자 중심의 후보자 연설회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결합의 지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줄줄이 대선 출사표

한명숙·김영환 이어 이해찬·김두관도... 후보들 쟁결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김영환 전 의원이 1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행자 부장관이 19일 대선 출마를 각각 선언하는 등 범여권 대선 후보들의 발결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8일 오전 여의도 정일빌딩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민을 감싸 안는 따뜻한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목의 출마 선언문에서 '교육혁신'과 '과학기술'을 핵심 키워드로 꼽은 뒤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특히 일본일당을 통해 범여권 내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손학규 전 지사와 최근 친노 주자로 급부상한 이해찬 전 총리와의 차별성

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한 전 총리는 손 전 지사에 대해 "큰 흐름 속에서 민주개혁진영에서 함께 경선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한나라당에 속했던 손학규씨와 민주개혁세력에 일관성 있게 몸담아온 저와의 차별성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19일에는 이 전 총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안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민주주의의 완성, 지속적 경제발전,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등 4대 핵심 구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18일 오후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가졌던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성단체, '성희롱 솜방망이 판결' 항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싱하듯 때렸다" 시인

김승연 회장 첫 공판... 검사에 신경질적 반문도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첫 공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흥기로 때렸거나 폭행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한 혐의 등은 부인하는 등 검사의 신문에 차분히 답했으나 중간 중간 검사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반문하기도 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회장은 검찰이 "청담동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때렸느냐"고 묻자 "뭐 하는 놈들이냐면서 가볍게 휘어박은 것 같다"며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던 '제3자'(참보과 두목 오모씨)가 끼여있어서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주점에서도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김회장은 "검사님 술집 안가 보셨죠"라며 "옆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까"라고 되물었

다. 김회장은 장소를 첨개산 인근 신축빌라 공사장으로 옮긴 뒤 자신이 김회장의 아들을 때렸다고 거짓말했던 피해자 조모씨를 3~4대 이상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어느 정도 때렸느냐는 검사에 연이어 묻자 "복싱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복싱에서처럼 '아구'를 여러 번 때렸다"는 거다"라며 오른팔을 휘둘러 보이기도 했다.

검찰의 신문은 쇠파이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로 이어졌고 김회장은 "(조직원) 머리통을 한 대 때린 정도지 특별히 심한 상처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가 검찰이 재차 질문하자 "때리는 흥내로 겁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공판은 한화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지켜봤으며 김회장과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 한화의 협력업체 사장 김모씨 등 피고인 5명이 나와 차례로 신문에 입했다. /연합뉴스

당 떠난 鄭 '투트랙' 행보

대통합 역할론... 범여 대권 레이스도 본격화

열린우리당 창당주역인 정동영 전 의장이 18일 당을 떠났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14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결의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을 떠난다"며 "먼저 떠난 분들도 있고 다음에 움직일 분들도 있으나 모두가 약속의 땅 대통합의 장에서 다시 하나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사실 정 전 의장의 우리당 탈당은 시기가 문제였지 이미 예상됐던 행보였다. 특히 김근태 전 의장의 지난 12일 대선불출 선언은 정 전 의장의 탈당에 속도를 내게 했다는 분석이다.

정 전 의장은 탈당회전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합의 '마중물'(캠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자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범민주·미래 세력의 여러분과 전방위로 만나 얼마 남지 않은

시한에 대통합의 길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그는 당장 19일부터 대통합 행보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자신의 대권 플랜도 가동하는 '투트랙'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이 처한 현실은 어두운 상황이다. 범여권 내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손 전 지사와 친노 진영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이해찬 전 총리의 뜬 바구니에 낀 처지가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합 행보의 경우 김근태 전 의장이 '이니셔티브'를 권 모양체이고 당 안팎에서 2선 대기론의 압박도 여전하다.

그러나 정 전 의장 측은 "이 전 총리의 경우 친노의 한계가 있고 손 전 지사도 한나라당 탈당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회망의 끈을 다시 잡아가고 있는 상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금운용 수익 목표가 고작 물가상승률?

평가단, 정부기금 방만운영 지적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2006년 사업·자산 운용 평가보고서'는 국민의 세금·재산에 해당되는 정부부서 기금들이 소홀히 다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금의 자산은 '노력해 이익을 내기보다'는 무사하게 손실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운용되면서 목표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이나 과거 3년 평균 수익률로 잡혀 있고,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이 동일하게 설정되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을 분산 예치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1개 은행에 집중시키는 사례도 있으며 단기자산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고 중장기자산을 확정금리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또 자산운용인력이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은가 하면, 자산운용 관련회의가 1년에 1차례만 개최되고 연간 운용계획을 결정하는 회의가 뒤늦은 해에 2월에 열리는 경우도 있다.

기금평가단은 보고서에서 스스로 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안되면 연기금투자자에 자금을 맡기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금들은 기획예산처의 요청과 유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자산운용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SASA FOR CHILD & JUNIOR ROOM

SASA&툼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비: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소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했기에, 웬이, 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넓어져 어린이내려면 부모님과 함께 쓸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고중

한교 전환영어

기존 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이론 영어 실력을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주기 위해 한교와우엘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영어개발기관과 함께 최상의 방법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가시적인 성과와 만족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능력 향상의 최선은 1:1 전화영어수업이다"

매일 원어민과 전화대화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영어공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영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화영어 학습법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교전화영어는 고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원어민 1:1 영어학습법으로 고객의 영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교전화영어의 장점

- 원어민과 1:1 수업, 수업시간동안 지속적인 케어로 학습효율이 높다.
- 일반 학원과 달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2배 효율적인 영어 학습방법이다.
- 학원에서의 이동시간 절약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수강생의 레벨에 맞는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
- 교재외에 레벨별 다양한 Topic 준비, 흥미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
- 우수한 원어민 선생님 확보 및 평가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 영어회화, TOEFL, TOEIC, IELTS 등 다양한 종류의 강좌가 있다.
- 현지직영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수강비용 체계.

한교인우회 한국고중 전화영어교육 전문회사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05.com

영업사원 모집
문의: 062-526-0509
011-9222-4562